

고흥,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50억' 도전

종합활성화 프로젝트 가동…5대 분야 23개 시책 추진
주민 주도형 기금사업 발굴·지속가능 기부문화 정착

고흥군은 고향사랑기부제를 단순한 재원 확보를 넘어 인구·산업·지역공동체를 있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육성하고, 2026년 모금액 50억원 달성을 2030년 인구 10만명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부 참여를 확대하고, 기부금이 지역 발전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장기 전략이다.

군은 맞춤형 흥보 강화와 범국민 기부 참여 확대, 차별화된 담대품 운영, 기금사업의 전략적 운용, 기부자 예우체계 고도화 등 5대 추진 분야, 23개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인지도 제고를 위

해 기부자 특성에 맞춘 온·오프라인 홍보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 연말정산 시기에는 집중 홍보를 통해 참여율을 높이고, 민간 플랫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콘텐츠 확산으로 제도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부 참여 저변 확대를 위해 고흥 출신 출향인 등 기부 가능자를 체계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고흥군 향우 2세 등을 중심으로 한 소액 기부자 참여도 확대한다. 특히 10만원 기부자를 대상으로 20만원 기부로의 단계적 전환을 유도해 안정적인 모금 구조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전국 향우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부 참여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고흥만의 특색을 살린 지정기부사업을 지속 발굴해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낼 계획



고흥군은 2026년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50억원 달성을 2030년 인구 10만명 비전 실현을 목표로 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활동 모습.



고향사랑기부제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모금 활동 모습.

이다.

담대품 분야에서는 고흥 특산품과 제철 식품을 중심으로 품질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기부자 선호 금액대를 반영한 고흥형 특화 담대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담대 품 품질 관리반 운영과 고객 만족도 조사

한 체감형 혜택 제공으로 재기부 참여를 유도한다.

기부금은 인구 10만 달성을 비전과 연계한 주거·의료·생활 기반 확충 사업과 역사·문화 지원을 활용한 지정기부사업에 전략적으로 활용된다. 또 주민 주도형 기금사업을 지속 발굴해 기부금 사용의 기시성과

공감도를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기부자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감사 문자 발송과 함께 담대품 배송 시 감사 서한문을 동봉·발송하고, 온오프라인 고흥애(愛) 전당 운영과 축제장 내 기부자 전용 라운지 운영 등 기부자 예우 시책도 함께 추진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 방식이다"며 "종합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2026년 50억원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기부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구례산수유꽃축제 3월 14~22일 열린다

버스킹·전통공연·체험 프로그램 마련…감성적 봄 여행 선사

구례군이 오는 3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 간 산동면 지리산온천관광지 일원에서 제27회 구례산수유꽃축제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군은 군정 상황실에서 구례산수유꽃축제 기본 계획 보고회를 열고 축제 방향과 주요 프로그램을 공유했다.

'영원한 사랑, 구례에 피어나는 노란 설렘'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산수유꽃축제는 지리산 자락을 따라 펼쳐지는 산수유꽃 군락으로 황금빛 불 풍경을 연출하며 방문객들에게 감성적인 봄 여행을 선사할 예정이다.

군은 올해 산수유꽃축제는 꽃 본래의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체험, 문화, 지역의 이야기가 어우러진 감성형 축제로 운영하게 된다. 또 교통, 안전 관리를 체계적으로

로 정비해 관광객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수유꽃축제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버스킹, 전통 공연을 비롯해 산수유 열매끼, 꽃길 걷기, 산수유차 시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구례 굿즈 전시, 판매, 어린이 체험프로그램 등 참여형 콘텐츠도 확대 운영한다.

개막식은 오후 3시로 옮겨 속품 영상 콘테스트와 주민 참여 공연을 통해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드는 화합의 축제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군은 산수유꽃축제와 함께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는 구례300리 벚꽃축제를 연계해 대한민국 대표 벚꽃 여행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례=김귀진 기자

장흥, 노인 사회참여 확대·일자리 환경 조성

127명 마을 환경정비·공공시설 관리 등 참여

장흥군은 최근 부산면 복지회관에서 '2026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필수 안전교육 및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사업 참여 어르신 127명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부산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12월까지 추진되며, 참여 어르신들은 마을 환경정비, 공공시설 관리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사회 공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안전교육은 사업 참여 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교육 내용으로는 흙한기 피해 예방 및 계절별 건강관리 요령,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이동 시 교통안전 수칙, 작업 전·후 안전수칙 및 보호장비 착용의 중요성, 무리한 활동 금지 및 개인 건강 상태 수시 확인 등 어르신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사항들이 강조됐다.

특히 야외 환경정비 활동이 많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날씨 변화와 개인 체력 상태에 따라 활동 강도를 조절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활동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 조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광양, 인센티브 강화로 체류형 관광 활성화

개별·소규모·체험형 트렌드 반영 '광양관광 미션투어' 운영
숙박·식당·시설 이용 등 현금 지급…반려동물 동반도 권장

광양시가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개별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양관광 미션투어'를 시행한다.

'광양관광 미션투어'는 개별·소규모·체험형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일반미션과 특별미션, 별빛 캠핑미션 등 다양한 맞춤형 미션을 통해 관광객 참여 확대를 도모한다.

해당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연 1회만 지원돼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특히 광양미래화축제 기간에 방

문하는 팀은 선착순 60팀으로 제한해 접수할 예정이다.

일반미션은 관광지를 자유롭게 여행하는 방식으로, 타 지역 거주 내·외국인 관광객이 1~5인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팀 대표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 팀은 광양 지역의 숙박업소, 음식점, 기관·유료 체험시설 등을 이용해 15만원 이상 소비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 방문, SNS 인증 등 모든 미션을 완료하면 팀당 8만원의 인센티브가 현금으로 지급된다.

다면 마트·편의점에서 구입한 단순 식

료품과 주류·담배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결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증빙자료로 인정된다. 무료 관광지만 방문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권리의 관광지를 방문해야 하며, 세부 기준은 광양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팀은 최소 여행 1일 전까지 사전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담당자 이메일(hari3606@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여행 완료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일반미션 완료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미션이 운영되며, 미션 완수 시 기념품 구려

미 '광양관광 럭키박스'가 팬덤으로 제공된다.

3월 개장을 앞둔 배알도별빛캠핑장과 연계해 캠핑 특별 굿즈를 제공하는 '별빛 캠핑미션'도 추진된다. 캠핑장 이용과 짚와이어 체험, 배알도 인근 음식점·카페 이용 총 3가지 미션을 인증한 참여자에게는 캠핑 특별 굿즈가 지급될 예정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광양관광 미션투어는 개별·소규모 여행객이 관광지 방문과 지역 상권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참여형 프로그램이다"며 "반려동물 등반 여행객, 신혼부부, 캠핑족 등 다양한 수요층을 고려한 맞춤형 미션을 통해 머물고 싶은 광양관광의 매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광양=김귀진 기자 lkkjin@gwangnam.co.kr



'순천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마무리

시·24개 읍면동 순회…316건 민원 접수

순천시는 최근 24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진행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지역 현안, 정책 제안 등을 즉시 조치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가능한 사안은 관계 부서에 지시해 신속히 처리했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시민과의 대화에서 노관구 순천 시장은 2026년 시정운영계획과 주요 역점사업, 추진 방향, 기대 효과 등을 시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며 시민들의 공감을 얻었다. 특히 읍면동별로 이어진 대화 시간에는 총 316건의 건의와 질의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돋보였다.

현장에서 제시된 생활 불편 사항과 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시민과의 대화는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별 현안을 함께 논의하는 현장 소통 프로그램으로, 시민 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소통 행정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을 마련했다.

노관구 시장은 "이번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10만원 초과 시 기준 공제율을 16.5%에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과 담대품 6만원(기부액의 30%)을 더해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 2월 20일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설 연휴를 전후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지역 특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 동안 고향사랑e을 누리집과 은행 앱(국민·신한·기업·하나·농협), 농협 청구를 통해 10만원 이상 기부자 중 200명을 추첨해 네이버페이 1만원권을 증정한다. 이와 함께 갓김치, 계장, 생선 등 인기 담대품 28개 품목 증량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담대품 증량 대상 품목과 세부 내용은 고향사랑e를 누리집 내 담대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확대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에 44%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4만4000원과 담대품 6만원(기부액의 30%)을 더해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경품 추첨과 다양한 담대품 증량 이벤트를 정성껏 준비했다"며 "2월 20일까지 이어지는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고향 사랑을 실천하고 알찬 혜택도 받아 가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주=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